산업브리프

Overweight
(Maintain)

반도체 / 디스플레이
Analyst 박유악
02) 3787-5063
yuak.pak@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반도체산업

이슈 코멘트 1: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발표. 그 외 Wafer 등 추가 품목이 지정될 가능성도 존재.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메모리 Neutral, 비메모리 Negative, 반도체 소재 Positive. 메모리는 수입 제한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출하량 감소를 넘어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 비메모리는 EUV용 PR 소재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 확대 전략에 부정적. 반도체 소재는 국산화율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해, 중장기 성장성이 높아질 전망.

>>>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이 각각 70~90%의 점유율로 독과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8월부터 수출 규제가 실행될 것인데, 이럴 경우 각각의 수출 계약 건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 절차(90일 소요)'를 거쳐야만 한다.

3개 품목 외에도 Wafer 등의 소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절실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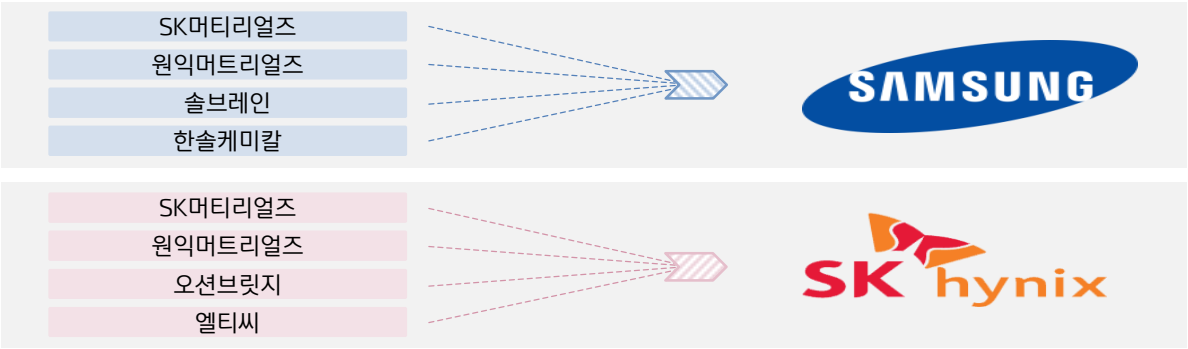
>>> 메모리 Neutral, 비메모리 Negative, 반도체 소재 Positive

이번 조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영향은 미미하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DRAM 73%와 NAND 46%를 각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로 인한 양산 차질 발생 시 출하량 감소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품목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게 될 수도 있지만, 총 원가 내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도 거의 없다.

이와 반대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EUV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즉 일본의 수출 제한이 발생할 경우, 고객 확대를 목전에 둔 삼성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도체 소재는 중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공정에 대한 기술 보호'와 '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어,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관련 Supply Chain 중 삼성전자는 '원익머트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SK하이닉스는 'SK머티리얼즈, 오션브릿지, 엘티씨'에 각각 주목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기대 업체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20%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상회)	시장대비+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하회)	시장대비-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비중확대)	시장대비+10% 이상 초과 수익 예상
Neutral(중립)	시장대비+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시장대비-10% 이상 초과 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8/07/01~2019/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61	95.83%
중립	7	4.17%
매도	0	0.00%